

#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1000억 돌파

### 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로 긍정적 효과 '톡톡' 구매시 10%·결제시 10% 추가 적립 등 추가 혜택 제공

군산시가 3월 21일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3,185억원보다 935억원 늘어난 4,12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상품권 이용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우선 월 구매 한도가 지난해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한인 혜택과 더불어 올해부터 모바일·카드

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더 적립해주는 추가 혜택(월 최대 2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상품권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추가 적립(인센티브) 지급액도 40억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내 약 1만 2,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 음식

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 중인 한 시민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받는 것도 좋지만 결제할 때 다시 10%를 적립 받으니 체감 혜택이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많이 추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이현현 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행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도농통합 30주년 여행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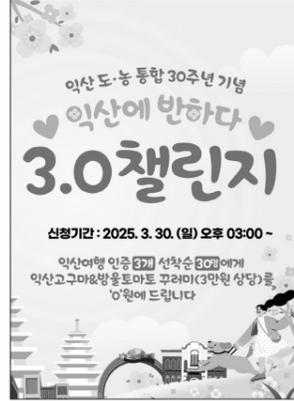
###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익산에 반하다 챌린지 3.0' 진행

익산시가 옛 도심과 백제역사유적, 지역 맛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 이벤트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이리시와 익산군의 도농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익산에 반하다 챌린지 3.0'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옛 이리시와 익산군 지역의 관광지를 각각 1곳 이상 방문하고, 익산 소재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한 인증사진을 남겨야 참여할 수 있다.

총 3곳을 방문한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폼(naver.me/GNWTvBOS)을 통해 이벤트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 30명에게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익산의 특산물로 구성된 3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이다.



옛 익산군 지역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비롯해 자연 속에서 쉬어 갈 수 있는 고스라, 아가페정원, 달빛소리수목원 등이 있다. 아울러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다이노키즈월드가 있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까지 매력적인 관광지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통합 30주년을 맞아 익산의 매력을 여행과 함께 즐기고 이벤트 참여를 통해 뜻깊은 선물까지 받아가길 바란다"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제25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군산시가 민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각계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제25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분야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등이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되면 올해 5월부터 2년의 임기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이다.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군산시청(3층)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산불 심각 단계...대응 만전"

### 전국 산불 확산... 취약지역 순찰 및 예방 활동 강화 지시 "경각심 갖고 철저히 대응... 시민 안전이 최우선" 당부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언급하며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전국이 산불로 비상 상황에 들어간 만큼 익산시도 산불 예방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시 산방방재대책본부는 현재 산방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감시 인력과 산방 진화 장비 등 초동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불철 산방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방방재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기간 산림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비상근무 하며, 각 읍면동에 산방감시원과 산방전문 예방진화대원 110여 명이 배치돼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함라산과 천호산, 시대산, 당제산에는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산방감시원이 주요 등산로에서 입산 시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마을 방송을 실시한다.

시는 불철 산방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본격 영농 활동에 앞서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에 봄이 다시 왔나봄' 이벤트 진행

### 군산시, 벚꽃 명소 사진 찍고 SNS 계정에 업로드

군산시가 관내의 벚꽃 명소를 대상으로 한 벚꽃사진 인증샷 '군산에 봄이 다시 왔나봄' 이벤트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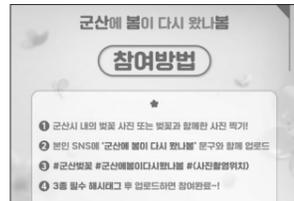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군산의 벚꽃 명소들을 배경으로 봄을 만끽하는 경험을 간직하고,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군산의 벚꽃 명소 등에 방문해 사진을 찍고 본인의 사회관계망(SNS)계정에 3중 필수 태그(#군산벚꽃, #군산에봄이다시왔나봄, #(사진촬영위치))를 포함해 올리면 된다.

게시 사진에는 벚꽃 사진이나 인물이 벚꽃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 응모된 사진은 군산시 홍보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다. 행사 기간은 4월 13일까지이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추천하는 주요 벚꽃 명소



는 반짝이는 호수 주변을 따라 화사한 벚꽃길을 자랑하는 은파호수공원, 50년 수령의 큼직한 벚나무들이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는 월명공원, 일렁이는 핑크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군산-전주 번영로(26번 국도), 한적한 시골 풍경과 함께벚꽃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나포 십자 들녘까지 다른 매력을 가진 명소들이 곳곳에 위치 해있다.

특히 은파호수공원은 물빛다리와 어우러진 야경을 선사해 낚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대표적인 군산 벚꽃 야경 명소로도 손꼽힌다.

/군산=이재춘 기자

# 계화림이 쏜다... '힘내자 익산! 만원의 행복'

### '하림로' 재지정 기념... 전 메뉴 최대 40% 특별 할인 행사

익산시 치킨로드 거점 공간인 '계화림'이 외식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시는 계화림이 익산시 명예도로 1호인 '하림로' 재지정을 기념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힘내자 익산! 만원의 행복'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닭 구이류와 옛날 봉당, 로스트치킨, 닭갈국수, 닭육개장 등 모든 메뉴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보글하우스·시티투어 관광객과 익산역 이용객은 20%, 다이어트 카드를 제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만 원 이하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계화림은 2023년 9월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에 문을 연 닭구이 전문점으로, 중앙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와 향토기업(계화림)이 함께 추진하는 '치킨로드'에 거점으로

동지를 틀었다. (주)하림 계열사인 (주)센바이콘이 '신선하지 않으면 굶지 않는다'는 가치를 내걸고 운영하고 있다.

(주)센바이콘은 계화림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와 협력해 중앙동 치킨로드 선정자 창업 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원탁 (주)센바이콘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길 바라며 행사를 마련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익산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